

# 영화·방송 종사자 '미디어 속 동물' 설문조사 결과

설문기간 | 2020년 6월 5일(금)~2020년 6월 28일(일)

설문참여자 | 157명

## 1. 참여자 정보(157명 답변)

### 활동 분야(192, 중복가능)

영화 73%(140명)

방송·드라마 8%(15명)

방송·교양/다큐 5%(11명)

뉴미디어(유튜브, 개인방송) 5%(10명)

방송·예능 3%(5명)

광고·뮤직비디오 3%(5명)

기타 3%(6명)

### 활동 기간(157명)

10년 이상 45%(70명)

1년 이상~5년 미만 26%(41명)

5년 이상~10년 미만 16%(25명)

1년 미만 12%(19명)

기타 1%(2명)

### 동물 출연 미디어 제작에 참여 여부(157명)

있다 61%(95명)

없다 39%(62명)

## 2. 동물 섭외 경험(95명 답변)

### 동물배우 섭외 경로(중복가능, 123명 답변)

동물 촬영 전문 업체에서 대여 44%(54명)

스태프 또는 지인의 반려동물 섭외 25%(31명)

동물 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에서 모집 또는 대여(비전문 동물 캐스팅) 24%(29명)

펫샵에서 구매 7%(9명)

### 동물 촬영 전문업체 선정 기준(중복가능, 120명 답변)

동물의 전문성(동물 경력 및 훈련 정도) 36%(43명)

동물의 이미지(외모) 22%(26명)

업체의 전문성(경력) 18%(21명)

적절한 비용 14%(17명)  
업체의 신뢰성(동물복지 및 동물 관리) 8%(9명)  
기타 2%(4명)

### '구매했거나 포획한' 동물의 촬영 후 처리(63명 답변)

입양 보냈다(본인 입양 포함) 22%(14명)  
업체(사람)에게 되팔았다 16%(10명)  
모른다 8%(5명)  
폐사(사망)했다 3%(2명)  
자연에 방사했다 1%(1명)  
\* 해당사항없음(대여 후 반납) 50%(31명)

### 3. 동물배우 복지(95명 답변)

#### 촬영 기간 동안 동물 건강 상태

건강 유지 48%(46명)  
건강 대체로 유지 37%(35명)  
건강 조금 악화 12%(11명)  
건강 악화 3%(3명)

#### 촬영 현장 동물의 주변환경 상태

좋다 35%(33명)  
대체로 좋다 40%(38명)  
대체로 나쁘다 17%(16명)  
나쁘다 8%(8명)

#### 촬영 현장 동물의 안전 상태

좋다 41%(39명)  
대체로 좋다 30%(28명)  
대체로 나쁘다 21%(20명)  
나쁘다 8%(8명)

#### 촬영 현장 동물의 스트레스 상태

스트레스 적다 12%(11명)  
스트레스 대체로 적다 29%(28명)  
스트레스 대체로 높다 37%(35명)  
스트레스 높다 22%(21명)

####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 유무

있었다 34%(32명)  
없었다 65%(62명)  
모름 1%(1명)

**촬영 동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스태프 현장 유무(84명 답변)**

있었다 64%(54명)  
없었다 35%(29명)  
모름 1%(1명)

**촬영 현장 근처 동물병원 위치 사전 파악 유무(84명 답변)**

안했다 56%(47명)  
했다 20%(17명)  
별도 방안 마련(수의사 연락처 확보) 11%(9명)  
동물촬영업체에서 관할(직원 상주) 7%(6명)  
모름 4%(3명)  
수의사 입회 2%(2명)

**동물 출연 대신 CG(컴퓨터그래픽 구현) 고려 유무(95명 답변)**

있다 41%(39명)  
없다 58%(55명)  
모름 1%(1명)

**CG(컴퓨터그래픽 구현) 고려하지 않은 이유(80명 답변)**

예산 부족 41%(33명)  
시간 부족 6%(5명)  
컴퓨터그래픽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 33%(26명)  
동물출연 익숙해서 8%(6명)  
기타(모름, 해당사항없음) 12%(10명)

**촬영 목적으로 고의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 보거나 경험한 유무(95명 답변)**

있다 8%(8명)  
없다 91%(86명)  
기타 1%(1명)

**촬영 시 사고로 동물이 죽거나 다친 유무**

있다 13%(12명)  
없다 87%(83명)

**촬영 시 동물이 인간을 다치게 한 사고 유무**

있다 8%(8명)  
없다 92%(87명)

#### 4. 개선방안(157명 답변)

##### 국내 촬영현장에서 출연 동물의 환경 상태

좋다 2%(4명)

대체로 좋다 29%(45명)

대체로 나쁘다 47%(74명)

나쁘다 22%(34명)

##### 국내 촬영현장에서 출연 동물의 안전 상태

안전하다 4%(6명)

대체로 안전하다 35%(56명)

대체로 위험하다 43%(67명)

위험하다 18%(28명)

##### 국내 촬영현장에서 동물 촬영 시 인간의 안전 상태

안전하다 10%(16명)

대체로 안전하다 55%(86명)

대체로 위험하다 29%(45명)

위험하다 6%(10명)

##### 출연 동물 적정 촬영 시간

4시간 미만 64%(85명)

4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 35%(46명)

8시간 이상 ~ 12시간 미만 1%(2명)

12시간 이상 0%(0명)

##### 동물 안전을 위한 필요 요소(132명, 중복)

동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현장 상주 97%(127명)

수의사 및 동물전문가 배치 73%(96명)

촬영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충분한 시뮬레이션 69%(91명)

안전한 대기 공간 마련 61%(81명)

출연 시간 및 자유 시간 분배 47%(62명)

동물 의상, 장비 및 소품의 안정성 체크 45%(59명)

촬영 목적의 마취 또는 진정제 사용금지 44%(58명)

동물 운송 수단 마련 39%(51명)

출연진 및 제작진의 개인 동물 현장 방문 금지 20%(26명)

기타(엄격한 계약서 및 동의서, 모두 해당) 4명

##### 촬영으로 동물 사망 혹은 상해 시 대처 방안(132명 답변)

PD 또는 현장 책임자에게 알리거나 시정 요구 77%(102명)

동물단체에 제보 10%(13명)

경찰에 신고 7%(10명)

SNS로 공론화 2%(2명)  
목인 1%(1명)  
기타(중복 답변) 3%(5명)

**출연 동물 환경 개선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**

출연 동물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체계 마련(법/제도 수립) 44%(69명)  
동물배우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20%(32명)  
스태프 대상 동물권 교육 의무화(동물 담당 스태프 우선) 17%(27명)  
동물학대 처벌 강화 8%(13명)  
동물 출연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전환(예산 및 인력 확보) 7%(11명)  
동물보호감시원의 촬영 현장 모니터링 2%(3명)  
기타(중복) 2%(2명)

**출연 동물 환경 개선 위한 두 번째 중요한 방안**

스태프 대상 동물권 교육 의무화(동물 담당 스태프 우선) 29%(45명)  
출연 동물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체계 마련(법/제도 수립) 22%(35명)  
동물배우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22%(34명)  
동물학대 처벌 강화 13%(20명)  
동물보호감시원의 촬영 현장 모니터링 7%(12명)  
동물 출연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전환(예산 및 인력 확보) 7%(11명)